

보도 시점 2026. 9. 23.(수) 10:00 배포 2026. 9. 23.(수) 08:00

현장에서 듣고, 양 세무당국이 함께 푼다... 국세청, 제1차 한·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

- 기업 간담회에 상대국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최초로 참석하여 애로 청취
- K-Tax Angel이 세무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동포의 세무 궁금증 해소
- 한·멕 청장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에 멕시코 국세청장 긍정적 화답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9월 22일(화)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국세청(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청장)과 제1차 한·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 앞서 9월 21일(월)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, 이를 멕시코 국세청에 전달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.

① 기업 간담회 및 세무 설명회 실시

- **멕시코***는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·수출거점으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,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.
 - * 우리나라의 중남미 제1위 교역국('23년 191억 달러→'24년 199억 달러→'25년 205억 달러)
- '25년 기준 자동차, 전자, 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562개 기업이 멕시코에 설립되어 활동 중이며, 1만 4천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.
- 임광현 청장은 멕시코 현지 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,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, 이중과세 등 다양한 세무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9월 21일(월) 「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- 이번 기업 간담회는 최초로 상대국 국세청 고위관계자(멕시코 국세청 카를로스 까메로 이전가격 수석과장)가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.

□ 참석 기업들은 현지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세무애로를 공유하였고, 특히 양국의 세법과 신고절차 차이로 인해 현지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멕시코 국세청에 세무신고 안내 및 애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요청하였다.

- 까메로 수석과장은 멕시코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,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한국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

□ 간담회에 이어 임광현 청장과 동행한 세금 수호천사팀(K-Tax Angel)*이 멕시코 진출기업과 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
* 세금 수호천사팀(K-Tax Angel) :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세무설명회 강사진('26.1월 출범)

- 기업 간담회가 멕시코 진출기업들과 현지 세무당국 간 세무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기회라면, 세무설명회는 멕시코 동포 등이 한국 내 납세의무 관련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리이다.

- 한국 자산의 양도·상속·증여, 이전가격 등 기업과 동포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설명회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

- 임 청장은 세무설명회에서 “재외동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므로 재외 동포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”임을 강조하며,

- 재외동포의 세정지원을 위해 출범한 세금 수호천사팀(K-Tax Angel) 제도를 대사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② 제1회 한·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개최

-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22일(화) 제1차 한·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양 국세청장은 “한·멕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세정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”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.
-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, 양국 간 이중과세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며,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멕시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다.
 - 이에 다그니뇨 청장은 “한국 기업들에게 세무애로가 발생하는 경우,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”고 밝혔고, “한국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”며 화답하였다.
- 아울러 이번 청장회의에서 양 세무당국은 전자세정 분야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실무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 - 임광현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, 홈택스 등 전자세정 경험과 함께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관리 등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,
 - 다그니뇨 청장은 “한국의 AI 대전환, 특히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다”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급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다.
- 임 청장의 멕시코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현지 세무당국 고위관계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 -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주요 세무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4-204-2861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우 (044-204-2862)
<협조>	국세청 빅데이터센터	책임자	과 장	임영미 (044-204-4501)
		담당자	사무관	조성희 (044-204-4502)

참고

보도참고자료 사진



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임광현 국세청장



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임광현 국세청장



기념촬영하는 안토니오 마르티네스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과 임광현 국세청장